

주일 예배 순서

- 부활절 제6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63:1-4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33장(새 69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3번(새 21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심을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 드립니다. 또한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어머니의 역할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어, 믿음의 어머니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것임을 사탄이 알기에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꾀계와 술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보고 깨달아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형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가족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참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요한복음 6:35-40, 13:1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사랑 - 거룩한 책임

- 봉 헌(offering) 348장(새 213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416장(새 294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은 Mother's Day 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3. 성경공부 및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30분에 있습니다. 성경공부 음성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카톡이나 CD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 메모리얼 데이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피크닉을 갖고자 합니다.
 - 일 시 : 5월 29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교회
 - 준비물 : 친교실 게시판 참조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임현정사모님 어머니, 기길숙 성도님

〈말씀묵상〉 요한복음 6:35-40, 13:1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 자신을 지칭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6:35-40)
2. 죽음을 목전에 앞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13:1)

❖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감정이 곧 사랑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그야말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총제적인 용어입니다. 감정은 그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사랑이 만약 감정이 중심이라면 사랑만큼 쉽게 사라지고 말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13:13).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고백에 뒤따르는 모든 책임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맘에 들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상대방을 끝까지 아껴주고 지켜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도 같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나 책임을 수반한 참사랑은 화려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외치는 사랑은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듣기 좋은 입술의 고백에 지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랑이 너무도 절실한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